

코오롱인더스트리 영업이익 감소...

삼성증권, 필름사업 부진 2012년 3810억원으로 ... 목표주가 하향조정

삼성증권은 5월25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목표주가를 9만원에서 8만원으로 낮추었다.

다만, 투자 의견은 <매수>를 유지했다.

삼성증권 이종욱 연구원은 “필름부문의 부진을 다른 사업부문에서 상쇄하면서 2012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4.1% 줄어들어 3810억원으로 예상한다”고 주장했다.

또 “1/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25.6% 증가한 960억원을 기록했다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5/25>